

# 전두환 “그런 무모한 짓 군인이 하겠나”...5·18 헬기사격 부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광주지방법에 출석한 전두환씨(89)가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사격을 부정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에 헬기에서 가격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러한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인 중위나 대위가... 난

## 광주지법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검찰 공소 설명에 인상 찌푸려...꾸벅꾸벅 또 즐기도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는 판사의 추가 확인질문에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조비오 신부의 회고록 내용을 요약하면 광주사태 당시 군 헬기 운행 사실은 광주시민 모두 목격했고, 헬기 기관총 사격 주장이 제기됐는데 당시 선교사였던 피터슨 목사가 관련 사진을 제출했다”며 “조비오 신부도 헬기에서 기총사 하는 내용을 눈으로 봤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전씨는 피터슨 사진은 가짜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가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며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반박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렸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과거 수

사기록에는 피터슨 목사의 목격 사진이 진짜로 밝혀졌고, 소준열 사령관의 진술도 있었으며 이후 헬기 사격의 탄흔이 전일빌딩에서 발견됐다”며 “피고인의 문제제기 근거가 잘못됐고 보안사 내부부서, 전일빌딩 감청결과서, 헬기탑재 실태 사실, 헬기사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등 조비오 신부의 목격담을 가짜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군 및 민간정보를 모두 취합하고 다른 자료들과 군 수뇌부가 무장헬기 명령을 하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고록 발간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11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도 전씨 측 변호인은 “(5·18 당시) 기총사사는 없었다. 설령 (헬기사격)이 있었다더라도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고 주장한) 5월21일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동영상 상영이 계속되는 동안 가끔 고개를 숙었던 전씨는 오후 2시45분쯤에는 헤드셋을 낀 채 고개를 완전히 떨쳤다. 재판 중간에도 목소리가 높아져 자 눈을 감았다 떴다를 계속했으며, 오후 3시3분쯤 헤드셋을 벗고, 다시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뜨고 재판정을 응시했다. 이를 보다못한 김정훈 판사가 3시13분쯤 “휴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시21분 전씨가 부인 이순자씨에게 귀속말로 뭉치를 물었고, 변호인이 화상질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요청했고 3시22분부터 10분간 재판이 휴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신봉우 기자**

## 대학생 단체 “전두환 단죄...광주恨 풀어줄 유일한 답”

“반역사적 행위 처벌해야” 전두환씨(89)가 27일 사자명예훼손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선 가운데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전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대학생 단체 ‘광주 5·18 서포터즈 오일있다’는 이날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단죄하는 것이

곧 5·18민주화운동의 시작이며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지켜낸 모든 영령들과 광주 시민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을 명령했고, 1980년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며 “그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 라고 모욕했고, 이는 광주 시민뿐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몸바쳐 노

력한 모든 이들을 능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명령자 등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5·18을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자들만 늘어났다”며 “정부는 반역사적이고 비인도적 행위를 하는 이들을 국가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두환 재판 받는 광주지법 앞 “전두환 구속” 요구 봇물



전두환씨(89)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전씨가 출석한 출입구 앞에서 오일어머니회 회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제창하고 있다.

전두환씨(89)가 27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월단체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이라 기자**

피해자들, 공식 사과·진실규명·구속 촉구 1980년 전두환 정권에 강제징집돼 프락치활동에 동원되는 등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및 의문사와 관련한

진실규명과 전두환의 구속을 촉구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피해자들은 “당시 전두환 정권은 어떻게라도 1980년 5월 광주에서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을 두 손으로 가리고 싶었고 정의를 외친 대학가의 항의를 꺾기 위해 청년 학생들을 초법적으로 군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안사령부 관리번호 1435번 전남대 노영필’, ‘관리번호 1617번 전남대 정진규’, ‘관리번호 1190번 경북대 조종주’, ‘관리번호 1806번 전남대 이덕준’, ‘관리번호 682번 한양대 이영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자신들이 군대에 끌려가 밀고자와 프락치활동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강제징집 피해자들은 “정부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의 주요 책임자와 부역자들을 당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강이라 기자**

## 자유연대 “전두환 모욕 인민재판”...5·18단체 고발

“명예 훼손 행위 반복”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등을 광주지법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인들은 불법조형물을 만들어 광화문 세월호 천막, 광주 5월광장 등의 장소에 설치해 폭행 퍼포먼스를 하는 등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모든 범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

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인 보복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재판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5월단체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이라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

준솔루션